

경남지부 연대사업, 이주노동자 영역 확장

열 개 사회단체와 ‘이주노동 119’ 사업단 출범 ...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119’ 사업 시작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사회연대사업 영역을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장했다.

노조 경남지부와 시민 사회단체들이 <이주노동 119> 사업단을 꾸렸다. 사업단은 첫 사업으로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119’ 사업을 시작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운동의 신호탄이다” 라고 밝혔다.

노조 경남지부는 12월 8일 국회에서 사업단 출범과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이 함께한 이날 토론회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노동권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제조업 이주노동자보다 훨씬 열악한 이주 농업노동자 현실을 한국 사회에 폭로하고, 금속노조가 같은 인간으로서 평등의 조건을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의의를 밝혔다.

조은성 노조 경남지부 사회연대사업부장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별



이는 사회연대사업 논의에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상담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고, 여기에 경남의 단체들이 동참해 <이주노동 119> 사업단을 꾸렸다” 라고 사업 시작 계기를 밝혔다.

조은성 부장은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119’ 는 <이주노동 119> 사업단의 출범 사업이다. ‘지구인의 정류장’ 이 사업을 진행하고, 노조 경남지부는 2,700만 원의 사업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라면서 “지금까지 148건의 상담을 했다” 라고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렸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시간, 임금, 사업장 변경, 주거, 건강권 문제 등을 국가가 나서지 않고 민간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상황 자체가 문제다” 라며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다”

라고 꼬집었다.

윤미향 의원은 “겨울이 오고 있다. 주거환경을 시급하게 돌아봐야 한다” 라며, 2020년 12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추위에 떨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행 씨와 같은 비극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부가 지

도·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주노동 119> 사업단은 노조 경남지부와 부산양산지부 서부산지회, 지구인의 정류장,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일환경건강센터, 파주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등 열한 곳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했다. 사업단은 첫 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119’ 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위한 재원은 노조 경남지부가 사회연대기금으로 마련했다. 경남지부는 2016년부터 관련 사업비에 더해 19,000여 명의 조합원이 매월 1인당 1, 2천 원씩 모은 사회연대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경남지부는 사회연대기금으로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등 사회연대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블랙리스트 활용 의혹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국회 기자회견 ... “블랙리스트 없다면 진환 조합원 복직 당장 이행”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의 비정규직 해고자 블랙리스트 활용 의혹을 제기했다.

지회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은 12월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지엠 복직약속 이행,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0년 1월 창원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합의에 따라 진환 조합원이 지난 11월 복직하기로 했다” 라면서 “복직할 하청업체는 수용했으나 원청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소송 미참여자라며 고용을 거부했다” 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진환 조합원은 2005년 노조 가입 후 해고당한 뒤 16년 동

안 한국지엠 불법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했다” 라며 “한국지엠이 노조 활동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복직을 막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27명의 해고자가 복직하는 동안 원청이 거부한 적이 없었다” 라며 “불법파견 소송을 하지 않은 비조합원도 창원과 부평에 복직해서 일한 예도 있다. 원청은 근거 없는 핑계를 대고 있다” 라고 꼬집었다.

지회와 정의당은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할 수 있는 해고자 복직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2020년 1월 창원, 부평공장 구분 없이 일자리가 생기면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복직시키기로 약속했다. 2020년 1월 이후 27명의 해고자가 복직하는데, 1년 10개월이 지난 11월 1일 부평공장 업체에 퇴직자가 생겨 복직 차례가 된 진환 해고자는 고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벌금 700만 원, 2016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비정규직의 손을 들었다. 민사와 형사 재판에서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범죄를 확정했고, 현재 카허 카셈 사장 역시 불법파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지부 임원 선출 완료

현대차 안현호, 현중 정병천, 한국지엠 김준오 지부장 당선 ... 기아차지부 17일 1차, 24일 2차 투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선거에서 기호 4번 안현호(5공장) 후보가 지부장에 당선됐다.

최용섭(변속기) 수석부지부장, 박용주(3공장) 부지부장, 천세춘(남양) 부지부장, 홍찬우(판매) 부지부장, 하영철(통합) 사무국장이 동반 당선됐다. 안현호 후보조는 12월 7일 기호 2번 권오일 지부장 후보조와 결선 끝에 53.3% 22,101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에 기

호 3번 정병천(자재운영부) 후보가 당선됐다.

김동하(의장2부) 수석부지부장, 최기철(건설기계조립부) 부지부장, 황준규(가공소조립부) 사무국장이 함께 당선됐다. 정병천 후보조는 12월 2일 기호 1번 오영선 지부장 후보조와 결선 대결에서 52.68% 4,082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에 기호 1번 김준오(부평) 후보가 당선됐다.

박성철(부평) 수석부지부장, 김동

춘(창원) 부지부장, 최대성(부평) 사무국장이 동반 당선됐다. 김준오 후보조는 12월 7일과 8일 기호 4번 민기 지부장 후보조와 결선을 벌여 56.7% 3,686표를 얻어 당선됐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12월 3일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12월 17일과 24일 각각 1차, 2차 투표를 시행한다.

각 지부 임원선거 당선자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